



## 피치,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김세중 선임연구원

- 11월 28일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로 유지하였으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한 단계 하향조정함.
  - 피치는 2년 내에 미국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밝히고 2013년까지 의회가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며 만약 합의에 실패한다면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피치는 2020년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90%에 달하고 이자부담액이 세입의 20%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미국 경제의 강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최고 신용등급인 AAA를 유지하기에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함.
  - 그러나 피치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은 예상된 것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으며, YCMNET의 투자전략가 마이클 요시카미는 미국이 현재의 상황을 영원히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해석함.
- 피치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슈퍼위원회의 합의 실패에 따른 조치로 2013년 1월 교체되는 새로운 정부에서도 재정적자 감축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신용등급 하향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함.
  - 2011년 8월 미 의회는 재정지출 삭감계획의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6명의 의원으로 이루어진 슈퍼위원회를 구성함.
  - 그러나 슈퍼위원회는 11월 21일 재정지출 삭감 계획 합의에 실패 했다고 선언하였으며, 피치는 슈퍼위원회가 2012년 11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 이전에 재정적자 감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고 평가함.

- 피치는 재정적자 감축 문제를 의회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함으로써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재정적자 감축 규모와 속도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2013년 1월 교체되는 새로운 정부에서도 재정적자 감축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신용등급 하향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함.
- 한편 무디스는 11월 24일 성명을 통해 미 의회가 재정적자 자동 감축 프로그램을 축소할 경우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슈퍼위원회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2013년부터 재정적자 자동 감축 프로그램이 시행되며 이 프로그램은 향후 10년간 1조 2천 억 달러 상당의 재정지출을 국방비와 비국방비에서 절반씩 자동으로 삭감하게 됨.
  - 무디스는 슈퍼위원회가 합의에 실패했지만 슈퍼위원회가 논의한 것과 동일한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 미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힘.
  - 그러나 재정적자 자동 감축 프로그램 중 재정지출 삭감 대상항목의 변동은 미국의 신용등급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지만 재정적자 감축 규모의 조정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함.
  - 최근 몇몇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정적자 자동 감축 프로그램 중 국방지출 감축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S&P도 슈퍼위원회의 합의 실패가 이미 8월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당장 신용등급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재정적자 자동 감축 프로그램이 일정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S&P는 2011년 8월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와 부채규모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미국의 신용등급 최고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으며, 유례없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 바 있음.
  - 그러나 S&P는 2013년부터 진행될 재정적자 자동 감축 프로그램이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에 한해 현재의 신용등급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정적자 자동 감축 프로그램 수정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냄.

(Forbes 등, 11/28)